대 학 주 보
〈1145호〉
1998년 5월 4일 월요일

알림터

교수동정

【서울캠퍼스】

△한정수(의학)교수=11일까지, 제4차 근골격계 학술대회 참가차 미국 방문

△박병수(영어영문학)교수=8일까지, 대학영어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발표차 태국방문

△장진(물리학)교수=21일까지, SID학회참가 및 논문발표차 미국 방문

취업정보

취업정보실로 문의

【서울캠퍼스】

△(주)중건정보=문리대, 법대, 정경대, 사대, 552-5520

△(주)파소나 코리아=기획, 영업직, 문리대, 법대, 정경대, 사대, 722-7500

△(주)코리아제록스=사무기 영업, 문리대, 3018-592/6

△(주)명미화장품=문리대, 법대, 정경대, 사대, 783-8730

△(주)동우해운=문리대, 법대, 정경대, 사대, 369-8000

【수원캠퍼스】

△대한물류=사무직, 953-2192/4

△(주)LPI=9일까지, 512-6063

△한진그룹 동양화재=10일까지, 019-292-2830

△(주)코리아 제록스=8일까지, 3108-594

△국제전열공업=전자, 6일까지, 032)548-1380

△대양물산=디자인, 설계, 032)691-1380/5

△(주)인터엠=전산직, 8일까지, 0351)60-7111/3

△(주)큐빅테크=전산, 산업공학, 11일까지, 3664-4700

△(주)국제 생명보험=영업관리, 595-5781/3

△AIR CARGO SYSTEM=항공, 해운업무직, 5월까지, 717-1181

△(주)동인 텍스컴=일어전공, 10일까지, 242-7811

△(주)성진 아이티에스=관리직, 563-4962/5

△(주)광우 메딕스=물리, 생물, 특수교육, 565-1221

△한국 인재 개발원=525-3156

△(주)유유산업=개발부, 마케팅부, 15일까지, 253-6600

습 득

분실자 편집실로

【서울캠퍼스】

△갈색 지갑=김태규(영교 94)

△검은색 장지갑=윤태규(법학 96)

△검은색 지갑=최재용

△회색 지갑=서미혜(기악 95)

△학생증=정환주(지리 96)

△국제 학생증=조혜진

△사진=국내외인 다수

【수원캠퍼스】

△지갑=스쿨버스 승차장

△검정색 지갑=도서관 화장실

△갈색 반지갑=중앙도서관, 나상문

△갈색 필통=중앙도서관

△표준일반화학실험=중앙도서관

△학생증=박민경(경영 1)

△갈색 손목시계=중앙도서관

△의료보험증=김원태, 중앙도서관

△영한사전=중앙도서관

분 실

습득자 편집실로

【서울캠퍼스】

△AIWA카세트=4월 28일, 노천 또는 복지회관 화장실

【수원캠퍼스】

△곤색가방(학교심볼마크)=4월 13일, 중앙도서관 열람실(015-8335-2454)

△검은색 무크지갑=4월13일, 중앙도서관 지하 남자화장실(012-820-3255)

△시계=4월11일, 학생회관식당(015-8491-9863)

△검은색 시스템 다이어리=(012-596-4547)

△검은색 삼성 애니콜휴대폰=체과대, 평생교육원

△황색 다이어리=4월28일, 분수대(015-8626-5144)

모 임

【수원캠퍼스】

△경주 향우회 = 8일 오후 5시 30분, 공대식당

△대원 동문회=4일 오후 5시 30분, 공대식당

등 기

등기물 우편실로

【서울캠퍼스】

△영문=권자욱(4) △철학=최진욱(4), 한경수(2) △화학=김현숙(4) △생물=홍수진(97) △행정=박진석(3) △경영=정민교(3), 이대전(1) △영교=김현정(3) △한의예=손경락(1), 황덕상(1), 전태복(2), 김전광(96), 박상년(본1) △한의학=김정열(3) △치대=조해성(95) △치의예=권정모(2) △악학=신경미(2) △체육=엄태혁(2) △기악=백수진(4) △피아노=이경실 △성악=이영아(3)

【수원캠퍼스】

△불문=전주연(93) △우주=한정훈(3) △기계=김도형(3) △건축=신제욱(3) △제1공학=김형수, 김기홍, 이현주 △전자=석해석(4) △전산=박철용(4) △조형=김태경(2) △체육=손윤미(93), 홍원표(94), 서이산(3), 김은혜(2) △애지원=하지훈(119), 장주동(406), 민병근(504), 김진열(507)

아르바이트

취업정보실로 문의

【수원캠퍼스】

△서울 마케팅 데이터=설문조사, 561-4925

△(주)한통=홍보활동, 0331)34-9400

△GMT 컨설팅=설문조사, 3462-6089

도깨비 장터

삽니다

【서울캠퍼스】

△프린터=흑백, Mac호환가능, 012-1838-2008

△액세스97=015-8399-6834

△'인체와 생명'=015-120-2606

△14인치 TV=012-1126-0842

【수원캠퍼스】

△'현대사회와 광고(광고론)'=012-1153-0926

△3.5인치 Drive=019-224-1123

△'Greek Mythology(Hamilton)'=015-5979-4995

팝니다

【서울캠퍼스】

△모뎀(33.6K)=3만원, 012-1142-1787

△비디오테잎(정무문 등)=019-224-9397

△책상=2만원, 침대=4만원, 015-8480-5296

△월세방(큰방)=보증금 1백만원 월세20만원, 015-8480-5296

△전자피아노(신디사이저)YAMAHA=15만원, 017-215-9782

【수원캠퍼스】

△오토바이(효성 크루스II, 2년 사용), 기숙사(201-2780, 354호)=017-337-0003

△미니컴보이(게임;아랑전설2)=012-1847-2107, 1만3천원

△'심리학개론', '경영학입문', '영화영어(English Partner)'=015-8430-7559

△'영어작문', '인간발달'=015-8430-7559

학우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벼룩시장인 '도깨비장터'를 마련했습니다. 사고 싶은 것, 팔고 싶은 것이 있으면 도깨비장터 대자보에 기입해 주기 바랍니다.

알림터 이용안내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마감

알림터는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게시판입니다.
우리 주변의 소식이나 알리고 싶은 일을 전해 주십시오.

문의 Tel. (02) 961-0095 Fax. 962-7718
Tel. (0331) 201-2056 Fax.(0331) 204-8121

주간 식단표

5월 4일~ 5월10일 — 서울 복지회관 식당

구분	요일	월(4일)	화(5일)	수(6일)	목(7일)	금(8일)	토(9일)	일(10일)
아침	3층	양식 1,300	어린이날	양식 1,300	양식 1,300	양식 1,300	양식 · 북어계란국 1,300	시금치된장국 1,300
	2층	김치콩나물국 1,300		쇠고기미역국 1,300	순두부찌개 1,300	해장국 1,300		
점심	3층	함박스테이크 1,700 햄김치덮밥 1,500		새우까스 1,700 중국식볶음밥 1,500	하이라이스 1,500 낙지불고기덮밥 1,700	돈까스 1,700 순대야채볶음덮밥 1,500	양송이스파게티 1,500 우거지갈비탕 1,700	바몬드카레라이스 1,700 보리비빔밥 1,500
	2층	설렁탕 1,500 닭갈비백반 1,700		부대찌개 1,500 오징어떡볶음덮밥 1,500	생채비빔밥 1,500 된장찌개 1,300	상추불고기비빔밥 1,500 짬뽕국밥 1,500		
저녁	3층	쪽찹 1,700 콩나물미더덕찜백반 1,500		카레라이스 1,500 샤태떡찜백반 1,700	새우볶음밥 1,500 난자완스 1,700	해물볶음밥 1,500 깐풍기 1,700	가지불고기덮밥 1,500 김치수제비국 1,300	치킨까스 1,700 장국밥 1,500
	2층	감자탕 1,300		제육볶음+쌈밥 1,700	쇠고기잡채밥 1,700	만두국 1,500		

5월 4일~ 5월10일 — 수원 학생회관 식당

구분	요일	월(4일)	화(5일)	수(6일)	목(7일)	금(8일)	토(9일)	일(10일)
아침 · 점심 1,200		우거지배추국	무채국	어묵무국	미역국	시금치국	배추장국	계란실파국
간편식I 1,500		모듬까스	비빔밥	제육덮밥	탕수육	양념치킨정식	돈까스	볶음밥
면류		초계냉면 1,500	초계냉면 1,500	라면+공기밥 1,300	물냉면 1,500	모밀국수 1,500	쇠고기짜장면 1,300	회냉면 1,500
저녁 1,200		순두부찌개	오징어국	콩나물 김치국	된장찌개	(쇠고기)버섯찌개		김치찌개
간편식II 1,500		닭조림덮밥		오므라이스	산나물비빔밥	육개장		
스 낵		우동, 김밥, 샌드위치, 만두튀김, 치킨세트, 씨리얼세트						

5월 4일~ 5월 9일 — 수원 공대 식당

구분	요일	월(4일)	화(5일)	수(6일)	목(7일)	금(8일)	토(9일)
아 침		쇠고기 미역국 1,300	어린이날	북어계란국 1,200	뼈해장국 1,300	쇠고기무우국 1,300	콩나물 김치국 1,200
점 심 1		돈육야채비빔밥 1,300		참치김치찌개 1,300	돈 · 불고기덮밥 1,300	감자탕 1,300	불고기 볶음덮밥 1,500
점심2		일식돈까스 1,500		후랑크 정식 1,500	치킨까스 1,500	비프스튜 1,500	함박스테이크 1,500
저 녁		짬뽕국밥 1,300 김치소고기볶음밥 1,500		닭갈비 덮밥 1,300 비프스트로가노프 1,500	시골순대국밥 1,300 삼선짜장밥 1,300	쏘세지야채볶음덮밥 1,300 뚝배기두부찌개 1,500	
스 낵		오징어튀김 900 김치전 900		해물김치전 1,000 튀김만두 1,000	김치전 1,000 탕수만두 1,000	떡볶이 900 후렌치T 900	야채전 900
면 류		김치우동 1,500		양송이스파게티 1,300	쫄면 1,200	사골떡국 1,300	김치라면 1,000

열린소리 참여안내

열린소리는 경희 가족 모두의 참여란입니다. 학내 · 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이야기를 대학주보는 성실히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시, 만화, 사진, 수필 등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의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거나 대학주보에 건의하고 싶은 사안 · 취재 제보가 있으면 학내에 비치된 열린소리함이나 다음 PC 통신 ID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투고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원고량: 200자 원고지 4매내외
■ 보낼곳: 서울 · 수원 본사 편집실
유니텔(ID):khunews 천리안(ID):zpiknews

학부제 논의, 학생들 의견도 존중해야

현재 국내 대학에서 경쟁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학부제 개편에 관한 논의는 국제 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 논의는 대학교육의 주체 중 하나인 학생을 소외시킨 채 정부당국과 학교당국 사이의 논의 테이블에서만 논의되고 있다. 도대체 국제경쟁력의 어느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학과제에서 학부제로의 전환이 필요한지, 학부제의 선진국형 모델을 우리의 대학 체제가 직접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가능하기나 한 것인지.

연구와 검토가 뒤따르지 않는 학부제로의 성급한 전환이 부정적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은 사필귀정이며, 그 부정적 결과의 대부분은 교육의 주체이자 수혜자인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학부제로의 전환을 지지하는 논리적 기반은 대략 두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인접 학문간의 연계성과 학문적 교류의 강화이고, 둘째는 무전공으로 입학하고 최소 전공 이수학점의 하향 조정을 통해 다전공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대학원 중심 선진국형 대학 모델을 따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형 모델의 도입을 비롯해서 학문의 독자적 영역의 깊이 문제를 놓고 보자면 이런 논리는 허약하기 짝이 없다. 인접 학문간의 학문적 연계성이라는 명목으로 기초과학 분야를 응용과학의 하부구조 속으로 편입시켜 가뜩이나 허약하기가 이를 데 없는 기초과학을 그 토대마저도 없애버리고 주변학문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나, 실용위주의 학문이 요구되는 현실이라는 핑계로 어문학 분야를 실용어학 분야로 전환시켜 인문학의 설자리를 없애는 것이 학부제 개편의 방향설정이다.

무전공 입학이라는 것도 그렇다. 대학에 들어와서 백화점 쇼핑하는 식으로 원하는 2-3개의 전공을 이수하고, 더 공부를 하고 싶으면 대학원에 진학하라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현행의 제도에서도, 심화전공 이수학점 정도 가지고는 전공 분야를 제대로 공부했다고 보기 어려운데 최소전공 이수학점을 30학점 전후로 낮춰서 두 세 개의 전공을 학부과정에서 이수하게 한다는 것은 대학의 학부 과정을 종합교양학교 과정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닌 것이다.

학부제 개편의 궁극적인 목표는 취업이나 경쟁력이라는 이유로 왜곡된 교육 시스템과 그것에 편승해서 일그러진 대학문화, 점점 관료사회화 되어 가고 있는 대학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이지 대학사회 구성의 중요한 주체인 학생들의 담보잡힌 미래가 아니다. 학제 개편 논의에 주체를 참여시키고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이는 대학당국이 '마땅히' 해야 하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고 재 갑
〈외대 영문 3〉

단대전산소 타단대생에게 개방을

며칠전 레포트를 작성하기 위해 외국어대 전산실에 들렀다가 타 단대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산실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너무한다는 생각에 외대교무실에 들러 자초지정을 설명하였더니 외대 방침이 그러해 어쩔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

이 문제는 내가 외대생이냐 사대생이냐를 떠나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도서관, 운동장은 물론 강의실도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외대 전산실을 타 단대생이라 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슨 횡포인가?

더군다나 학생들의 정보화를 위해 C.R.S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면서 학생들이 전산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학교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학생을 위해 내실있는 행정을 기해야 하고 개선할 것이 무엇인지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기 바란다.

김 재 호
〈사회대 경영 1〉

일방적 학사운영 지양 돼야

"학부 운영 방침에 있어 학생과의 논의는 필요가치 없음, 싸울테면 싸워봐라 이제 보니 형편 없는 놈이군…" 이것은 정경대 게시판에 붙은 대자보의 내용중 일부인데, 학교측의 학사운영에 관련된 학부 학생회장의 질문에 대한 학부장의 답변이었다고 한다. 그냥 지나가다 별 생각없이 읽은 글이었는데 왠지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고등학교 때 이와 비슷한 문제로 학생주임과 교감선생님께 들었던 말과 거의 같았기 때문이다.

그때도 "아직 어린 놈들이 뭘 안다고 그러냐, 그런 건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라며 의견 개진의 여지조차 주지 않았다. 그런데, 지성인의 터전이라는 대학에서조차 이런 소리가 나온다니, 답답함과 무기력함을 동시에 느꼈다.

학교가 학생의 위치를 인정조차 해주지 않는 모습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학부제로의 통합과 장학생 선발 기준, 야간 학생회관의 폐쇄 등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어느 한가지만을 탓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에 언급한 사례들이 어떠한 일정한 원칙, 규칙에 의한 것이 아닌, 너무나 일방적이고 무성의하게 이루어진다는데 문제가 있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학생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권위주의적이고 구태의연한 학사행정과 학생과의 합의와 참여가 없는 운영이 계속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학교 발전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박 정 호
〈정경대 경영 1〉

유치원생보다 못한 '대학생' 질서의식

요즘 수원캠퍼스 중앙도서관 분수대를 찾는 외부 사람들의 발길이 잦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곳의 규모와 시설에 경탄하는 말들을 하곤 한다.

며칠전 유치원생들로 보이는 아이들이 봄소풍을 겸하여 이곳을 견학한 적이 있었다. 그 아이들은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 놀이도 하고 그림도 그리다가 준비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고 돌아갔는데, 앉아있던 자리가 휴지나 오물 한 점 없이 아주 깨끗했다. 돌아가기 전에 스스로 뒷정리를 했던 것이다. 그때가 점심시간이 막 지난 때여서 사색의 광장 주변에는 학우들이 담배와 음료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얼마후 이들이 떠난 자리에는 담배꽁초와 종이컵 등으로 매우 지저분해져 있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어린 유치원 꼬마들에게 우리가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며, 또 그들은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 참으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대학종합평가사상 최고점수를 획득하는 등 우리학교의 앞날은 매우 밝아 보인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주변 환경을 갖추어 놓았다고 한들 그것을 사용하는 구성원의 주인의식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spwoo@nms.kyunghee.ac.kr)

□ 발칸반도의 화약고 코소보 분쟁

외세개입 거부 '발칸전쟁' 비화 조짐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발칸반도를 휩쓸었던 유고내전이 1995년 '다이톤 평화협정(Dayton Peace Accord)'의 체결로 진정의 국면을 맞은지 불과 얼마되지 않아서 세르비아의 남단 코소보지역에서 새로운 민족분쟁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코소보 분쟁은 세르비아내의 소수민족인 알바니아계가 90%라는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인종의 섬 코소보주를 분리독립시키려는 코소보주 알바니아계와 이를 허용치 않으려는 세르비아의 서브족간의 민족분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 코소보분쟁이 발칸반도의 새로운 화약고로서 국제사회를 긴장시키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이유는 코소보 주변국들의 복잡한 민족구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분쟁이 확산될 수 밖에 없는 지역적 상황 때문이다. 발칸반도가 제1차 세계대전의 진원지였던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는 코소보의 국지분쟁이 제2의 발칸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코소보는 '위대한 세르비아'를 건설하려는 서브민족주의와 '위대한 알바니아'를 건설하려는 알바니아 민족주의의 두 전선이 부딪치는 도화선과 같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코소보는 그리스정교를 믿는 서브민족이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하는 라자 왕자가 1389년 이슬람교의 오트만 투르크와의 전쟁에서 전사한 '까마귀 벌판'이 위치한 지역으로 서브민족주의의 성지로서 간주되고 있어 세르비아로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다.

한편 종교적으로 이슬람인 코소보주의 알바니아계는 코소보 전체인구의 9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인 서브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실을 용납할 수 없으며 민족자결주의의 원칙에 의거 분리독립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알바니아계의 주장은 '위대한 알바니아' 건설을 목표로 하는 알바니아 민족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현재 알바니아인들은 알바니아의 3백40만, 코소보의 2백만, 서부 마케도니아의 50~60만, 몬테니그로의 6만 외에도 남부 세르비아, 북부 그리스, 서유럽의 여러나라에 걸쳐 살고 있는 알바니아인을 통합하여 하나의 국가를 건설한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코소보 분쟁은 '위대한 세르비아'의 기치를 내걸고 세르비아의 대통령에 당선된 슬로보단 밀로세비치가 1989년 코소보가 누려온 자치주로서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고 코소보주 알바니아인들을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SFRY)의 모든 공직에서 추방하는 조치를 취하자 이에 대응하여 1991년 코소보주 알바니아계가 독립적인 '코소보공화국'의 수립을 선언하고 1992년 이브라임 루고바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면서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1996년초 이후 '코소보 민주동맹'(LDK)을 이끌고 있는 루고바의 '행동하는 비폭력 무저항운동'에 불만을 품은 과격파들은 '코소보해방군'(UCK)을 중심으로 요인암살, 전면적 게릴라전과 같은 극단적인 무력투쟁을 표방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1996년 9월 1일 바티칸의 중재로 밀로세비치와 루고바간에 타결된 '교육협정'은 그동안 두 민족간 갈등의 진원지였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알바니아 학생들과 교사들의 학교복귀를 결정하고 협정의 이행을 위해 3명의 서브인과 코소보 알바니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결국 협정은 이행되지 않았다. 1997년 10월 1일, 이와 같은 협정의 불이행에 항의하여 일어났던 알바니아계 학생들의 평화적 시위를 세르비아경찰이 무력진압함으로써 코소보분쟁이 촉발되기 시작했으며 지난 2월 28일 코소보해방군의 본거지를 공격함으로써 무력분쟁으로 비화되기 시작했다.

코소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또한 가시화되고 있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소수민족고등판무관 막스 반 데 스툴은 지난 2월 코소보를 방문하여 두 분쟁당사자간의 평화적 분쟁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곤잘레스 전 스페인 대통령을 특사로 선임하여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 EU 또한 조사단을 파견하고 유럽에서 민족분쟁의 재발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3월 31일 중국을 제외한 14개 이사국의 찬성으로 신유고연방에 대해 무기금수 조치를 취하는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한편 미국을 위시한 6개국의 접촉그룹은 4월 29일 로마에서 회의를 갖고 해결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유고연방은 일체의 외세개입을 거부하고 있어서 여전히 코소보 분쟁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과연 코소보분쟁은 새로운 발칸전쟁으로 비화될 것인가? 국제사회는 엄청난 희생을 치룬 끝에 종식되었던 유고내전의 쓰라린 경험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홍 기 준
〈아태연구원 책임연구원〉